

「민족형식 논쟁」 평가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

김 회 증*

<목 차>

1. 머리말
2. 延安 지역 논자의 견해차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3. 지역 구분 문제 및 평가와 관련하여
4. 논자의 견해와 경력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5. 향후의 과제 및 맺음말

1. 머리말

「민족형식 논쟁」¹⁾은, 1938년 하반기에서 1942년 상반기까지, 延安·重慶·桂林·成都·昆明·香港·上海·永安·金華·晉察冀邊區·晉冀魯豫邊區 등 당시 일본점령구를 제외한 중국 각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이 논쟁에서는 신문예·문인문예·민간문예의 성격과 장단점, 전통문예의 계승과 외래문예의 수용 등에 대해 폭 넓고 깊이 있는 검토가 진행되었고, 문예의 민족성과 세계성, 전국성과 지방성, 민족화와 대중화, 내용과 형식, 신형식 탄생의 법칙, 예술성과 보급성이라든가 문예와 정치, 문예와 사회의 관계 …… 등과 같은 문예 이론의 각종 문제

*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1) 이하 「민족형식 논쟁」은 특별히 강조해야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편의상 「」 표시를 빼도록 하겠다.

가 모두 언급되었으며, 또한 대중어 및 문자개혁의 문제와 문화노선 내지는 문화정책의 문제까지 관련되었다. 더구나 이 논쟁은 그 발생과 진행 과정 자체가 문학혁명 이후 중국 현대문학 진전의 필연적인 결과였다고 여겨지며, 또 그 이후의 중국문학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민족형식 논쟁에 대한 연구는, 중국 현대문학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면에서나 중국문학의 현안과 향후의 진로에 일정한 시사를 준다는 면에서, 또 더 나아가서 문학 자체의 보편적인 법칙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면에서 모두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민족형식 논쟁에 대한 연구는 그것이 가진 의의에 비추어 볼 때 아직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거의 모든 방면에서 상이한 견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명백한 오류도 발견되는 데다가, 예컨대 일부 지역의 논쟁에 대한 것처럼 어떤 부분은 아예 연구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중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백영길과 진형준의 탐색적인 작업을 필두로 하여 김양수와 필자의 본격적인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그야말로 당연하면서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²⁾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중국현대문학 연구 분야의 대표적 학술지인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과 《新文學史料》에 필자의 <中國現代文學史上“民族形式論爭”研究>와 <中國現代文學史上“民族形式論爭”有關資料目錄>가 게재된 것은³⁾,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연

2) 白永吉, <「民族形式」論爭について>, 《文學研究科紀要 別冊 第一二集(文學藝術學篇)》, 東京: 早稻田大學 大學院 文學研究科, 1985, pp.107~120.; 진형준, <민족형식논쟁에 대한 비판적 연구>, 《중국어문학》 제9집, 경산: 영남중국어문학회, 1985.7, pp.151~171.; 김양수, 《1940년대 중국문학 민족형식론 연구》, 서울: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2.; 김희준, 《중국현대문학의 「민족형식 논쟁」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2. 이 중 백영길의 논문은 나중 <민족형식 논쟁>이란 제목으로 그의 《중국향전기 리얼리즘문학논쟁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1998)에 수록되었다. 이하 《1940년대 중국문학 민족형식론 연구》는 《민족형식론 연구》라고 하고, 《중국현대문학의 「민족형식 논쟁」 연구》는 《「민족형식 논쟁」 연구》라고 하겠다.

3) 金惠俊, <中國現代文學史上“民族形式論爭”研究>,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1996年 第3期, 北京: 作家出版社, 1996.8, pp.97~118.; 金會峻, <中國現代文學史上“民族形式論爭”有關資料目錄>, 《新文學史料》 2000-1, 北京: 人

구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성과물들을 토대로 하여 더 많고 더 나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기보다는, 이 논쟁이 오히려 연구자들의 관심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다른 연구자의 가세에 의한 새로운 작업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자들에 의한 후속 작업조차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민족형식론 연구》 중에서, 필자와 동일한 혹은 유사한 설명 및 견해를 확인해봄과 동시에, 주로 필자는 달리 알고 있거나 달리 판단하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선택하여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것은 민족형식 논쟁 본래의 모습과 의의를 더욱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2.延安 지역 논자의 견해차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자는延安 지역의 민족형식 논쟁과 관련하여 일찍이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다.

延安의 논자들은, [...], 크게 보아 대개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대개 [...] 민족형식 창조의 주요 토대는 구문예며 구형식 이용이 그 기점이 된다고 본 그룹이다. 이 그룹은 [...] 陳伯達·蕭三·羅思 [...] 부류와 艾思奇·柯仲平·洗星海 [...] 부류로 다시 나눌 수 있다. 두 번째는 [...] 대개 민족형식 창조의 주요 토대는 신문예라 간주한 그룹으로, 이에 속하는 사람으로는 何其芳·沙汀·茅盾·王實味 등을 들 수 있다. 세 번째는 周揚·張庚 등 일종의 절충적 견해를 제시한 그룹으로, [...]

延安의 이러한 논쟁은 전체적으로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있었다. 대개 (1) 항전이라는 상황에 대응한 문예가들의 실천적 노력이 결국 일종의 「민족문예」라 할 어떤 새로운 문예의 창조가 필요하다는 근본적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이것이 「민족형식」이란 용어로 대표되면서 본격적으로 탐구되기 시작한 발단 시기 (2) 민족형식 문제에 대해 주로 선전적 측면을 강하게 의식하는 가운데, 민족형식 창조에 있어 신문예를 부정하고 구문예를 긍정하면서 구형식 이용의 의미

를 높이 평가하는 주장이 주류를 이룬 시기 (3) 민족형식 문제의 선전적 측면을 인정하되 문예자체의 측면에도 주목하는 가운데, 민족형식 창조에 있어 신문예를 긍정하고 구문예를 비판하면서 구형식 이용의 의미를 저평가하는 주장이 대두되어, 그때까지 주류를 이루던 주장에 대해 비판을 가한 시기 (4) 이 같은 서로 상이한 주장에 대해 절충을 시도하여 신·구문예에 대해 비교적 균형 잡힌 평가를 내리면서 민족형식 창조는 현실생활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한 시기 (5) 절충론에 대한 반발·실천과 관련한 탐구로 대표되는 논쟁의 심층화 및 延安 정풍운동으로 이어지는 종결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⁴⁾

그런데 《민족형식론 연구》는 延安 지역의 민족형식 논쟁과 관련하여 225~226쪽의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延安에서의 민족형식 논의는 [...] <論新階段>이 발표된 후, 1939년에는 주로 구형식 이용론이 강하게 대두되었으나, <新民主主義論>이 발표된 후, 1940년에는 五.四 이래의 신문예를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주류를 형성해 갔다. 논의과정에서 구형식논자와 신형식논자간에 의견차이는 존재했지만 커다란 의견 대립은 없었다. 다만, 王實味의 경우는 다소 예외로 구형식에 대하여 강한 반발을 보였는데, 그것은 트로츠키주의자라는 그의 사상적 측면과 관계가 있다. 延安에서의 논의는 1942년 <在延安文藝座談會上的講話>로 취합되는 특징을 보인다.

여기서 보다시피 延安의 민족형식 논쟁이 진행된 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비록 약간의 지엽적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양쪽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필자가 延安의 논쟁에서 상당한 견해차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에 《민족형식론 연구》는 별로 커다란 의견 대립은 없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필자가 王實味를 何其芳·沙汀·茅盾 등과 같은 부류로 간주하고 있음에 반해, 《민족형식론 연구》는 王實味를 예외적 존재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延安 지역 논자 사이에는 견해차가 있었는가? 견해차가 있었다면 그 양상은 어느 정도였는가?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

4) 김희준, <延安 지역의 '문예의 민족형식 논쟁'에 대하여>, 《중국어문학》 제20집, 영남중국어문학회, 경산 : 1992.6, 257~258쪽.

기 위해 다소 중복되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민족형식론 연구》의 언급을 보도록 하자.

延安에서도 신형식론자와 구형식론자간에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그다지 적대적이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95쪽)

앞에서 열거한延安의 이론가들 사이에는 비록 의견차이는 있었다 할지라도 그다지 극단적인 형태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외곽에는 적대적이라 할 만한 입장도 존재하고 있었다. 王實味が 바로 그 경우에 해당된다. (109쪽)

대체로 논자들간의 대립이 첨예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王實味の 경우와 같이 강한 대립적 견해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은, 당시로서는 중공 내에서 毛澤東 노선이 아직 확고부동하게 자리잡지 못했었음을 반영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1942년 이후에는 정풍운동의 결과로 대립적 견해가 사라지게 되며, 창작면에서의 성과도 가져오게 된다. (128쪽)

延安에서의 民族形式論議는 [...] 1939년에는 주로 구형식이용론이 강하게 대두되었으나, [...] 1940년에는 五·四이래의 신문예를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주류를 형성해갔다. 논의과정에서 구형식론자와 신형식론자간에 의견차이는 존재했지만 커다란 의견대립은 없었다. 다만, 王實味の 경우는 다소 예외로 구형식에 대하여 강한 반발을 보였는데, 그것은 트로츠키주의자라는 그의 사상적 측면과 관계가 있다. (225~226쪽)

《민족형식론 연구》에 따르면, ‘외곽’에 자리잡은 王實味の 경우를 ‘예외’로 한다면延安 지역 논자들 간의 의견 차이는 그렇게 ‘적대적’·‘극단적’인 양상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이러한 견해는 사실과 다소 거리가 있는 듯하다.

먼저 王實味에 대한 평가부터 검토해 보겠다. 《민족형식론 연구》는 “王實味 민족형식론의 이론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있어 트로츠키파의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112쪽)라면서, 중국의 트로츠키파 역사를 살펴보는 가운데 王實味が 트로츠키파에 속하는 인물이라 단정하고, “陳伯達와 王實味の 사이에는 분명히 정치적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말하자면 중국혁명에 있어 毛澤東노선과 트로츠키노선의 차이점”(118쪽)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王實味が 트로츠키파냐 아니냐가 외곽/내

부, 예외/일반, 적대/우호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첫째, 王實味는 분명히 당시 공산당원이자 中央研究院의 연구원으로 심지어는 陳伯達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도 했었는데⁵⁾ 어째서 외곽인물이라고 평가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 당시 王實味の 견해에 동조한 사람이 상당히 많았는데⁶⁾ 어째서 王實味만 예외적으로 취급되어야만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王實味는 당시 상당수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트로츠키파 사상과 접촉한 사실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트로츠키파는 아니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중국 정부는 1992년 그가 트로츠키파가 아닌 것으로 최종 판정, 그를 복권시켰던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간단히 黃昌勇의 <生命的光華與暗影---王實味傳> 중에서 다음 부분만을 인용하도록 하겠다.

王實味の 이러한 기본적으로 학술 토론에 속하는 견해[민족형식 문제, 신문에 대중화 문제 등에 관한 견해를 말함] [...]는 그의 뛰어난 이론 사변의 특기 및 진리를 추구하는 학술적 사색의 품격을 나타내 준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트로츠키파 사상의 실질이 정치적 반격을 가한 것이라는 수준으로 턱없이 격상되었다. (192쪽)

이듬해[1992년] [...] 2월, [...] 두 담당자가 다시 車城에 와서 2월 7일 공안부가 작성한 <王實味 동지의 트로츠키파 문제 재검토에 관한 결정>을 전달함으로써 王實味 사건은 철저히 명예가 회복되었다. (195쪽)

王實味が 과연 트로츠키파 인물이나 아니냐 하는 문제를 떠나 더욱 중요한 점은, 민족형식 문제에 관한 王實味の 견해가 과연 어떠했으며

5) 中央研究院의 전신은 1938년 5월에 설립된 馬列學院으로, 1941년 7월에 馬列研究院으로 개편되어 8월에 다시 中央研究院으로 개명되었다. 王實味는 처음 魯迅藝術學院에서 근무하다가 馬列學院 설립과 더불어 이곳의 편역실로 옮겼고, 후일 여기서 한동안 陳伯達와 같이 근무했다. 黃昌勇, <生命的光華與暗影 -- 王實味傳>, 《新文學史料》 1994年 第1期,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4.2.22, pp.169~195를 참고하기 바람.

6) 《민족형식론 연구》에서도 “그러한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 분위기의 본산은 중앙연구원이었다. [...] 그중 핵심적인 인물은 王實味로, [...]”(65쪽);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王實味에게 갈채를 보내던 사람들이 비판의 과정에서 입장을 바꾸어 [...]”(118쪽)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한 견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민족형식론 연구》의 각도에서 보자면, 王實味の 트로츠키파적 사상이 민족형식 문제를 논함에 있어 어떠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규명했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단 한 군데(112쪽)를 제외하고는 이 점이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민족형식론 연구》는, “하지만 [...] [트로츠키파의 일반적인 경향과는 달리] 王實味の 경우처럼 대중화 자체에 대한 허무주의적 입장은 특수하게 취급될 수밖에 없었다”(115쪽)고 평가하고 있다. 말하자면 王實味는 트로츠키파 인물이기 때문에 延安 지역의 논쟁에서 ‘외곽’에 자리잡은 ‘예외’적 경우의 ‘적대적’·‘극단적’인 태도를 취했으면서도, 또 트로츠키파의 일반적 경향과도 동떨어진 입장을 취한 셈이 되는 것이다.

《민족형식론 연구》의 이러한 상황은 어디서 기인하는 것인가? 필자가 보기에는, 王實味が 발표한 글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그의 사상적 배경에 너무 집중한 탓이 아닐까 한다. 그 때문에 《민족형식론 연구》는 또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구형식론자들에 대한 태도를 보면 王實味の 입장이 마치 周揚이나 何其芳의 경우와 유사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양자간에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周揚·何其芳이 신형식을 강조하면서도 구형식과의 연계를 고민했던 데에 반하여, 王實味는 구형식을 배척하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표명하고 있었다는 점이 그러하다. (111쪽)

필자는 앞의 인용문에서 제시했듯이 王實味를 何其芳·沙汀과 같은 신문예 옹호 그룹으로 周揚은 일종의 절충적 태도를 취한 그룹으로 분류했었다. 필자가 알기로는 何其芳과 王實味를 같은 계열로 본 것은 필자가 유일한 듯한데, 이는 주로 그들이 신문예를 적극 옹호했다는 점에 주목한 결과이다. 하지만 필자는 같은 글에서 여러 차례 되풀이해서 王實味の 과격한 태도와 何其芳의 상대적으로 온화한 태도를 언급하면서, 양자간의 차이점을 거론했었다.⁷⁾ 다만 여기서는 이러한 점은 일단 제쳐두고 陳伯達와 같은 구형식 논자들과 何其芳·沙汀의 견

7) 김희준, <延安 지역의 ‘문예의 민족형식 논쟁’에 대하여>, 224 및 227~229쪽 참고.

해차가 어느 정도였나를 확인해 보도록 하자.

陳伯達와 何其芳의 견해 차이는 한 두 가지만 비교해 보아도 금방 드러난다. 민족형식 문제의 제기에 대해 그들은 각각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陳伯達) 근래 문예상의 이른바 「구형식」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정확히 말하자면 민족형식 문제이자 [...]

문예는 구체적·민족적·사회적인 진실 생활의 반영이어야 하고 동시에 또 수천 수백만 인민이 항전에 참여하도록 일깨우는 무기가 되어야만 한다. [...] 이 점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예는 광대한 일반 백성들이 「즐거 보고 듣는 바」가 되어야만 한다. [...] 광대한 일반 백성이 「즐거 보고 듣는 바」가 되기 위해서는 광대한 일반 백성이 오랜 기간 익숙한 민족형식을 방치할 수는 없다.⁸⁾

(何其芳) 목하 제기된 민족형식은 의식적으로 다시금 구문학과 민간 문학 속에서 더 많은 영양을 찾아내자는 것에 불과하며, 의심할 바 없이 신문학이 앞으로 발전해나가는 방향일 뿐 새로 신문학을 건설 하자는 것은 아니다.⁹⁾

陳伯達는 선전적 필요에 의해 대중화·통속화가 필요하며, 대중화·통속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구형식의 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 같은 견해에 따르자면 민족형식 문제란 결국 단순히 구형식 이용 문제에 불과하다. 하지만 何其芳은 陳伯達와는 전혀 달리 민족형식 문제란 신문예의 발전을 위해 구문예 속에서 일종의 영양분을 흡수하자는 것일 뿐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 민족형식 창조의 방안에 대해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陳伯達의 경우에는 “신형식은 「무」로 부터 탄생될 수는 없으며, 구형식의 지양으로부터 탄생되는 것이다”¹⁰⁾라고 주장했으며, 何其芳은, “따라서 그

8) 陳伯達, <關於文藝的民族形式問題雜記>, 《文藝戰線》 1-3, 延安, 1939. 4. 16. 胡風 編輯, 《民族形式討論集》, (華中圖書公司, 1941.5.1), 10쪽에서 인용.

9) 何其芳, <論文學上的民族形式>, 《文藝戰線》 1-5, 延安, 1939. 11. 16. 李其林 選編, 《文藝戰線·抗戰文學期刊選輯(二)》,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247쪽에서 인용.

10) 陳伯達, <關於文藝的民族形式問題雜記>. 《民族形式討論集》, 11쪽에서

것의 토대는 두말 할 나위도 없이 신문학에 있을 따름이다”¹¹⁾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이다.

선전상에서건 문예상에서건 구형식 이용을 극도로 높이 평가하는 陳伯達의 견해와 비교하여 볼 때, 《민족형식론 연구》가 “철저한 구형식주의자”(92쪽)라고 평가한 沙汀은 또 어떠한가? 沙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광대한 민중을 동원해서 항전에 참가시킨다는 전제하에 구형식 이용을 현재 문예 활동의 주력으로 삼는 것, 이는 극히 당연하다. 문예 자체에서 말하자면, 그 활동은 또 신문에 약간의 새로운 자극과 영양을 줄 수 있으며, 또한 대중의 감상 능력을 제고하여 그들을 점차 신문에 접근시킴으로써 문예와 대중의 결합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구형식 이용의 문예상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형식 이용이 즉시 신문을 풍부하게 하는 효과를 거두리라고 희망해서는 안된다. [...] 왜냐하면 유산의 흡수란 주로 그것의 창작방법과 묘사 기교를 배우는 것으로, 중국문예 전통에서 현실주의는 극히 박약하고 사실적 기교는 더욱 초라하기 때문이다.¹²⁾

沙汀은 구형식 이용이 선전적 측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라는데는 동의했지만, 그러나 민족형식 창조라는 문예발전면에서는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인용문을 들 것도 없이 이 인용문만으로도 沙汀이 철저한 구형식주의자가 아님은 물론 오히려 그가 陳伯達와는 전혀 상반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상의 설명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필자는 다시 다음과 같은 언급을 참고로 제시할 수도 있다.

문예면에서도 그는 延安의 일부 주도적 이론과 어울리지 않음을 느꼈다. [...] 魯藝의 문학과는 陳伯達가 강연을 다녀간 직후 전문적으

인용.

- 11) 何其芳, <論文學上的民族形式>. 《文藝戰線·抗戰文學期刊選輯(二)》, 247쪽에서 인용.
- 12) 沙汀, <民族形式問題>, 《文藝戰線》 1-5, 延安, 1939.11.16. 《文藝戰線·抗戰文學期刊選輯(二)》, 249쪽에서 인용.

로 문예의 민족형식 문제를 토론했다. 張庚·蕭三은 수천년 문화유산의 정화와 민간 창작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沙汀·何其芳은 반박을 가했는데, [...] 결과적으로 [...] 「새로운 예술지상주의」라는 허물을 쓰게 되었다. 沙汀의 四川 기질이 발동하여 매우 심하게 언쟁을 했다. 이후 중앙문화공작위원회의 확대회의와 문협 좌담회에서도 이 논쟁은 줄곧 계속되었다. [...] 오래지 않아 그는 결국 정식으로 四川으로의 귀향 청원을 제출했다. 周揚과 洛甫(張聞天)가 처음에는 그를 찾아와 대화를 나누면서 만류하고자 애썼다. [...] 이어서 周揚이 동의했고, 조직의 허가를 받아 그의 귀향에 관한 두 가지 임무를 안내하여 [...]13)

沙汀은 《민족형식론 연구》의 평가와는 정반대로 신문예주의자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구형식주의자들과의 갈등이 周揚 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延安에서 重慶으로 돌아가 버리는 한 원인이 되기까지 한 것이다. 何其芳 역시 십여 년이 지난 1953년에 이르러서도 “당시 重慶에서 뿐만 아니라 延安에서도 이 문제의 토론 중에 일부 부적절한 의견들이 출현했었다”¹⁴⁾라 말할 정도였다.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외곽’에 자리잡은 王實味의 경우를 ‘예외’로 한다면 延安 지역 논자들 간의 의견 차이는 그렇게 ‘적대적’·‘극단적’인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다는 《민족형식론 연구》의 견해는 아마도 사실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보다는 王實味와 陳伯達 등과의 사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들 두 사람간의 견해차 외에도 延安 지역의 논자들 사이에는 전적으로 상반되는 견해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겠다.¹⁵⁾

13) 吳福輝, 《沙汀傳》, (北京: 北京十月文藝, 1990), 235~237쪽.

14) 何其芳, <現實主義的路, 還是反現實主義的路?>, 《文藝報》1953年 第3號,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6쪽.

15)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민족형식론 연구》 역시 “陳伯達에 대한 비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당시 내부의 논의를 통해서 구형식적 입장이 비판받았었고, 신형식을 강조하는 입장이 우위를 점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111쪽)라고 하고 있다.

3. 지역 구분 문제 및 평가와 관련하여

앞에서는 延安 지역 논자의 견해차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검토해 보았다. 민족형식 논쟁에 대해 언급하는 연구자들 사이에는 논쟁의 지역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는 각 지역 간의 상황이 상이함에서 오는 각 지역의 독자성을 제시하고 상호 비교 검토해 보기 위해서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일부 연구자의 경우에는, 이에 덧붙여 논쟁이 延安·重慶은 물론이고 桂林·成都·昆明·香港·上海·永安·金華·晉察冀邊區·晉冀魯豫邊區 등 중국 각지에서 전국적인 범위로 전개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여겨진다. 필자 역시 이러한 점들에 주목하여, 延安·香港·重慶·桂林·晉察冀邊區의 논쟁을 각기 고찰해보았으며, 아마도 《민족형식론 연구》 또한 이 때문에 논쟁의 지역을 크게 공통구와 국통구로 나눈 뒤 공통구에서는 延安를 다루고 국통구에서는 重慶·香港·桂林을 각각 다루었던 것 같다.

그러나 필자는 여기서 부득불 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민족형식론 연구》의 경우, 비록 지역별로 나누어 논쟁의 상황을 살펴보는 했지만 그 근본 목적인다고 할 각 지역의 독자성을 제시하고 상호 비교하는 방면에서는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싶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민족형식론 연구》가 香港을 간단히 국통구로 분류해 버린 데서도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영국 통치하의 香港은, 당시 조계지였던 上海와 더불어 그 나름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곧 국통구나 공통구와는 다른 사회 환경이 주는 자유성과 제한성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좌우익 문제에 있어서는 양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반면에, 일본군에 의해 포위된 영국의 식민지라는 조건이 주는 한계도 있었던 것이 그러하다. 또 교통과 통신면에서 양 지역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웠던 반면에, 그들의 이론적 주장을 실천할 만한 농민 위주의 대중적 기반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 그러하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었을 때, 필자가 보기에 香港의 논쟁은 최소한 두 가지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첫째, 시기적으로 延安 지역에 잇달아 고조를 보였다는 점에서, 延安 지역의 민족형식 논쟁이 어떠한 형태로 타 지역에 전파되었는가를 살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延安 지역의 논쟁의 진전을 수용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그 독자성을 갖추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점이 특히 重慶 지역의 논쟁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민족형식론 연구》는 香港을 국통구의 일부로 취급해 버렸고, 이에 따라 민족형식 논쟁에서의 香港의 독자성이나 그 역할이 그다지 드러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예컨대 《민족형식론 연구》는 香港의 논자인 宗珪가 한 다음과 같은 말에 대해서 다소간 동떨어진 설명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구형식의 운용에서부터 토론을 전개한 내지와는 다소 다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독특한 민족성을 지닌 문예를 건립하고자 하는 데서 민족의 구문예 형식을 이용하고 새로운 민족문예 형식을 창조하는 것으로 나아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있어 약간의[상당한] 견해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구형식 이용에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所以, 我以為在這兒, 見解上頗有一些兒出入, 因為我們既不是純然從舊形式的利用出發, [...]16)

宗珪의 이 말에 대해서 《민족형식론 연구》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민족형식론 연구》는 “陳伯達·艾思奇的 구형식론을 격렬하게 반대한 것은 아니지만, 신형식논자로서의 자기입장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 宗珪가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해도, 그것이 香港 문예계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입장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182쪽)라고 설명하고 있다. 《민족형식론 연구》가 왜 느닷없이 ‘우리’라는 표현을 지적하여 설명을 가하고 있을까? 그것은 宗珪가 延安 지역과 香港 지역의 차별성을 강조한 것은, 그 개인의 견해이지 香港 지역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하기 위해서인 듯하다. 그러나 필자가 검토해 본 바로

16) 宗珪, <文藝之民族形式問題的展開>, 《大公報·文藝》 751, 香港, 1939.12.

12,13. 인용문 중에서 원문과 병기한 부분의 번역은 《민족형식론 연구》의 것이고, 그 앞 단락 번역은 필자가 덧붙인 것이다.

는¹⁷⁾ 宗珪의 이러한 진술은 전혀 어긋남이 없다고 여겨진다. 더군다나, 《민족형식론 연구》도 병기해 놓은 바로 그 원문에서 보듯, 宗珪는 그의 글 전체에서 시종일관 ‘나我’라는 단어와 ‘우리我們’라는 단어를 매우 엄격하게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다.¹⁸⁾ 되풀이해서 말하자면 宗珪의 언급에 대한 《민족형식론 연구》의 설명은, 아마도 香港 지역의 특수성을 다소 간과한 데서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각 지역의 논쟁 상황과 관련하여 《민족형식론 연구》가 桂林 지역의 논쟁을 다루고 있음은 매우 의의 있는 작업이었다고 생각한다. 필자 역시 桂林 지역의 논쟁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민족형식 논쟁」 연구》에서 특별히 이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다만 《민족형식론 연구》는 黃藥眠의 글 1편과 馮雪峰의 글 2편, 그리고 戲劇春秋社의 좌담회 기록만을 다루었을 뿐이어서 좀더 본격적으로 이 지역의 논쟁 상황을 검토해 보았다더라면 더욱 좋았을 터인데 라는 아쉬움이 남은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더라도 기타 분야는 제외하고 문학 분야만도 약 25편 정도에 이르기 때문이다.¹⁹⁾

또한 《민족형식론 연구》는 “桂林에서의 민족형식논쟁은 1941년 1월, 皖南事變의 발발 이후 다수의 문인들이 香港으로 옮겨가면서 종결된다.”(191-192쪽)라고 했는데 필자의 판단은 이와 전혀 다르다. 비단 그 이후에도 이 문제와 관련한 글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었을 뿐만 아니라, 1941년 하반기에 열린 文藝生活社의 『1941년 문예운동 검토 좌담회』에서는, 금후 노력해야 할 세 가지 사항 중의 하나로 민족형식 문제의 지속적 토론 및 실천이 결정되기도 했다. 더군다나 1942년 초에 이르면, 국민당 측이 주도하던 간행물을 중심으로 민족형식 논쟁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이 가해지기도 했다.²⁰⁾ 따라서 桂林 지역의 민족

17) 김희준, <香港 지역의 ‘문예의 민족형식 논쟁’에 대하여>, 《중국어문논총》 제3집, 고대중국어문연구회, 서울 : 1990.12, pp.301~340.

18) 필자는 宗珪의 위 인용문과는 다른 부분에서 나타나는 ‘우리我們’이라는 표현을 근거로 하여 당시의 香港 상황을 추론한 적이 있다. 김희준, <香港 지역의 ‘문예의 민족형식 논쟁’에 대하여>, 278쪽 참고.

19) 김희준, <中國現代文學史上“民族形式論爭”有關資料目錄>를 참고하기 바람.

형식 논쟁은 1942년 상반기에야 종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桂林 지역의 논쟁에 관한 《민족형식론 연구》의 작업과 관련하여 필자는 여기서 한 가지 과제를 같이 논의하고 싶다. 그것은 각 논자 또는 그의 주장을 어느 지역에서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전쟁 중이던 당시의 논자들은 각지를 전전하는 경우가 잦았고, A지역의 논자가 B지역의 간행물에 투고하는 경우도 상당했으며, 심지어 중복 투고 내지는 전제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1938년에서 1940년까지 馮雪峰은, 민족형식 문제와 관련하여 모두 다섯 편의 글을 썼다. 그중 <關於“藝術大衆化”>는 重慶의 《抗戰文藝》 3-9/10, 1939.2.18.에 발표했으며, <論兩個詩人及詩的精神和形式>와 <形式問題雜記> 두 편은 香港의 《文藝陣地》 4-10, 1940.3.16. 및 4-11, 1940.4.1.에 발표했다. 그리고 나머지 1940.1,2 경에 집필한 <民族性與民族形式>와 1940.3.29.에 집필한 <過渡性與獨創性> 두 편은 발표지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민족형식론 연구》의 경우 重慶 및 香港에서 발표된 글은 배제하고, 마지막 두 편만을 골라 桂林 지역의 논쟁 부분에서 다루고 있다. 이는 아마도 그의 이 두 글이 나중 桂林에서 출판된 《魯迅論及其他》²¹⁾에 수록되었던 점을 고려한 까닭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필자의 경우에는 重慶 및 香港에서 발표된 글들은 각각 그 지역의 논쟁에서 다루었고, 발표지가 불명인 글은 애초 馮雪峰이 重慶에 거주했던 것으로 오인하고서 重慶의 논쟁에서 다루었다가,²²⁾ 나중 《「민족형식 논쟁」 연구》에서는 이를 수정하여 특정 지역 논쟁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²³⁾

20) 王一樵, <當前的文化問題>, 《振導月刊》 1-2, 桂林, 1942.2, pp.28~31. ; 李子青, <文學上的所謂民族形式問題>, 《振導月刊》 1-2, 桂林, 1942.2, pp.2~35. ; 王平陵, <略論文學與民族性>, 《國防週報》 5-3, 桂林, 1942.2.22. p.10~? 등이 바로 그에 속한다.

21) 馮雪峰 著, 邵荃麟 編, 《魯迅論及其他》, (桂林: 充實社, 1940.10). 이 책은 邵荃麟이 馮雪峰의 체포 소식을 듣고서 항전발발 이후에 馮雪峰이 발표한 글을 모아 출판한 것이다. 이 책에 민족형식 문제와 관련된 다섯 편이 모두 실려있음은 물론이다.

22) 김희준, <항일전쟁시기 重慶 지역의 「민족형식 중심원천 논쟁」에 대하여>, 《중국어문논총》 제6집, 서울: 중국어문연구회, 1993.12, pp.101~169.

23) 이 두 글이 실린 《魯迅論及其他》는 桂林 논쟁의 고조기가 지난 후 출

한 두 가지 예를 더 들어 보자. <민족형식론 연구>는, 당시 桂林에 거주하고 있던 黃藥眠이 <大公報·文藝>(香港版)에 기고한 <中國化與大衆化>(1939.12.10.)²⁴⁾를 통해 桂林 지역의 논쟁을 살펴보고 있다. 이는 타당성이 있는 작업이었다고 판단된다. 黃藥眠의 이 글은 文協桂林分會가 개최한 『문예상의 중국화와 대중화 문제 좌담회』(1939.10.28.)에서 제시했던 자신의 견해와 일부 참석자들의 발언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처음 黃藥眠의 글을 香港 지역의 논쟁에서 다루었다가²⁵⁾ 이를 참고로 하여 나중 <「민족형식 논쟁」 연구>에서는 중복을 피해 桂林 지역의 논쟁에서 다루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있다. 당시 上海에 거주하고 있던 巴人에 대해서는, 필자의 경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香港의 논자로 취급했었다.²⁶⁾ <민족형식론 연구> 역시 巴인이 上海에서 거주한 사실을 밝히면서도 필자와 마찬가지로 그를 香港의 논자로 취급하고 있다. 비록 명확한 설명은 없지만 아마도 이는 그의 발언이 실질적으로 香港 지역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 이런 경우도 있다. 필자는 重慶의 <理論與現實> 1-3, 1939.6.10.에 발표된 張庚의 <話劇民族化與舊劇現代化>를 延安 지역의 논쟁에서 다루었다. 그것은 張庚이 延安의 魯藝에 근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글 자체가 1939년 상반기쯤에 魯藝에서 강연했던 바를 정리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족형식론 연구>는 이 글이 원래 延安에서 먼저 발표되었으리라는 점을 전제로 하되 그 발표된 곳이 重慶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重慶 지역의 논쟁에서 다루고 있다.

판되어 이 지역 논쟁의 진전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으며, 항전초기 馮雪峰은 주로 그의 고향인 浙江省 義烏縣을 중심으로 활동했으므로 지역을 특정하기가 곤란했기 때문이다.

24) 이 글은 그에 앞서 <救亡日報·文化崗位>(桂林)에 <文藝上之中國化與大衆化問題>(1939.11.26 27.)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고, 특히 香港의 <立報·言林>에도 <中國化與大衆化>(1939.12.21,27.)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25) 김희준, <香港 지역의 '문예의 민족형식 논쟁'에 대하여>.

26) 예컨대 그의 글이 홍콩 신문에 게재되자 그에 대한 반박문이 발표되었고 그가 다시 이를 재반박한 일이 있었으므로 그를 홍콩의 논자로 취급했다. 자세한 것은 김희준, <香港 지역의 '문예의 민족형식 논쟁'에 대하여>, 272 쪽을 참고하기 바람.

이처럼 상기한 몇몇 예에서 보다시피 각 논자 또는 그의 주장을 어느 지역에서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한 것만은 아니다. 이 문제가 각 지역의 독자성 문제와도 연결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필자의 생각으로는, 일단 주요 활동지(거주지)를 기준으로 삼되, 어떤 논자의 발언이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어떤 지역의 흐름을 보여 주고 있는가 하는 점 등을 보조 기준으로 삼는 것이 비교적 무난하지 않겠나 싶다. 만일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馮雪峰을 香港·重慶·桂林(최초 발표지가 불명이니까) 지역에서, 黃藥眠을 桂林(및 香港) 지역에서, 巴人을 香港 지역에서, 張庚을 延安에서 다루는 것도 괜찮으리라 여겨진다.

4. 논자의 견해와 경력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앞의 두 절에서 각 논자의 견해와 경력에 대한 평가가 각 지역의 평가와도 그대로 연결되는 경우를 여러 차례 살펴보았다. 이는 다시 말해서 각 논자의 견해와 경력에 대한 평가가 전체 민족형식 논쟁 평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한 항목이라는 뜻이다. 여기서는 《민족형식론 연구》가 당시의 논자들에 내린 평가 가운데 필자로서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궁극한 점들을 좀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다음과 같은 《민족형식론 연구》의 말부터 살펴보자.

延安에서도 신형식논자와 구형식논자 간에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그다지 적대적이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95쪽)

重慶의 중심원천논쟁 [...] 참가한 논자의 숫자나, 발표된 글의 편수, 그리고 의견대립의 격렬함 등으로 보았을 때, [...] 여타 지역의 논쟁에 비해 최대 규모였다고 할 수 있다. [...] 向林冰에 대한 비판자들이 대부분 中共系 인물들이었던 것을 보면, 논쟁의 격렬함에는 中共의 정책적 의도가 어느 정도 관철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48쪽)

《민족형식론 연구》의 이 두 인용문을 연결시켜 생각해 볼 때,延安과는 달리 重慶에서는 ‘적대적’ 의견 대립이 있었으며, 向林氷과 그의 반대파인 ‘중공계 인물’이 곧 ‘적대적’ 의견 대립을 한 주인공들이다. 다시 말해서 ‘적대적’ 의견 대립의 주요 인소 중 하나는 ‘중공계 인물’이나 아니냐라는 쟁인데,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는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우선 ‘중공계 인물’이 정확히 공산당원만을 가리키는지, 혹은延安 쪽 노선에 찬성하는 좌익계 사람만을 가리키는지, 그도 아니면 단순히 좌익계 사람 전부를 가리키는지 모호하기는 하지만, 다른 누구보다도 向林氷 자신이 바로 ‘중공계 인물’이었다는 점이다.²⁷⁾ 다음으로는 向林氷 비판자 가운데서도 그를 가장 논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극단적으로 비판한 인물은 胡風이었는데, 向林氷과 胡風의 관계는 결코 ‘적대적’이 아니었다. 胡風이 向林氷의 논리를 비판하는 데 사용한 자료의 상당수는 向林氷이 제공한 것이며, 胡風과 向林氷은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손수 만든 음식으로 같이 식사를 하곤 했던 것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²⁸⁾

그렇다면 ‘적대적’ 대립이 없었다고 해야 할 것인가?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을 듯하다. 다만 그 상황이 《민족형식론 연구》의 설명과는 좀 다를 뿐이다. 《민족형식론 연구》에서는 거론하지 않았지만, 鄭學稼는 <論「民族形式」的內容>, 《中央周刊》 3-45, 1941.6.20.에서 胡風에 대해 인신공격성의 격렬한 비난을 가했는데, 어쩌면 혹시 이 경우가 그에 속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²⁹⁾ 또는 앞에서 거론한 바 桂林 지역의 일부 논자들이 민족형식 논쟁 자체에 대해 비판을 가한 것을 그러한 범주에 넣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郭沫若에 대한 평가를 보도록 하겠다. 郭沫若는 그동안 민

27) 馬良春 李福田 總主編, 《中國文學大辭典》 第4卷,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2108쪽; 李盛平 主編, 《中國近現代人名大辭典》, (北京: 中國國際廣播出版社, 1989.4), 491쪽.

28) 胡風, 《胡風回憶錄》,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3.11), 208~209쪽을 참고하기 바람.

29) 이에 관해서는 김희준, <胡風의 《論民族形式問題》에 관한 시론>, 《중국어문논총》 제5집, 서울: 고대중국어문연구회, 1992.12, pp.65~93.을 참고하기 바람.

족형식 논쟁에서 가장 진전된 견해를 제시했던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그러나 필자는 일관되게 이러한 평가는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 문제에 대한 필자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郭沫若의 글은, 민족형식 문제에 있어 현실생활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점에 있어서는 인정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편견과 오류 역시 적지 않았다. [...] 발표의 시의성, 그의 문단에서의 지위, 사전 협의의 가능성 등 때문에, 논쟁의 국면 전환에 일정한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 둘 것이 있다. 한 가지는 그의 글이 발표된 뒤에도 그에 대한 반발이 많았다는 점이다. 다른 한 가지는, 논쟁의 방향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 데는 그의 역할도 상당했지만, 羅蕪과 胡風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는 점이다. 특히 胡風이 보여준 성취와 노력은 重慶의 중심원천 논쟁을 한 차원 높여 주었다는 점에서 郭沫若보다 더욱 높이 평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³⁰⁾

《민족형식론 연구》 역시 분명히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필자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그것은 《민족형식론 연구》가 郭沫若을 약 3쪽 정도 다루면서, 羅蕪도 약 2쪽을 할애하고 특히 胡風의 경우에는 약 13쪽에 걸쳐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짐작된다. 또 郭沫若이 “중국 신문에는, 사실상 중국 구래의 두 가지 형식--민간형식과 사대부형식--의 종합·통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으니, 민간형식에서 그 통속성을 취하고 사대부형식에서 그 예술성을 취하였으며, 거기에서 외래의 인소를 더하여서 또 구래의 형식과 외래형식의 종합·통일이 되었다.”³¹⁾라고 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필자와 《민족형식론 연구》의 평가가 비슷하다는 데서도 나타난다.

신문학이 전통문학·민간문예·서방문학이 모든 것에서 영향을 받았음은 틀림없지만, 엄격히 따져서, ‘종합·통일’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민간형식에서 그 통속성을 취하고 사대부형식에서 그 예술성을 취하였으며’ 운운은 문학의 특성을 무시하는 대단히 불합리한 단언이다.(《중국 항일전쟁시기 ‘문학의 민족형식 논쟁’ 연

30) 김희준, 《「민족형식 논쟁」 연구》, 166쪽.

31) 郭沫若, <「民族形式」商兌>, 《大公報·星期論文》, 重慶, 1940.6.9, 10. <民族形式討論集>, 155쪽에서 인용.

구>>³²⁾, 74쪽)

사실상 이 시기 대부분의 신형식론자들이 구형식을 범주화하지 못하고 한데 묶어 비판하던 경향을 보였던 것과 비교해 볼 때, 구형식을 민간형식과 사대부형식으로 나누고, 양자에서 모두 취할 점이 있다고 보았던 것은 분명 郭沫若의 탁견이다. 하지만 민간형식으로부터 통속성을 취하고 사대부형식에서 예술성을 취했다고 한 것은 다분히 도식적인 발상이라고 생각된다. (《민족형식론 연구》, 149~150쪽)

그렇기는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郭沫若에 대한 《민족형식론 연구》의 몇몇 평가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한다. 郭沫若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다시 한번 말하겠거니와, '민족형식'이란 이 새로운 요구는 우리 민족이 과거 시대에 이미 만들어낸 그 어느 기성형식의 부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민족의 오늘에 적합한 신형식의 창조를 요구하는 것이다. 논의의 여지도 없이 민족형식의 중심원천은 현실생활이다. 금일의 민족현실의 반영이라면 당연히 금일의 민족문예 형식이 될 것이다. 그것은 결코 민간형식의 연장도 아니요 사대부형식의 전변도 아니며, 이 두 가지 유산으로부터 그것은 가능한 한 영향을 섭취하는 것이다.³³⁾

그런데 《민족형식론 연구》는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郭沫若가 구형식의 답습을 반대했던 것은 물론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신형식'도五四 이래의 신문예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郭沫若는 중심원천을 어떤 특정한 형식에서 찾지 않았다. 따라서 민족형식의 창조에 있어 중심원천은 현존하는 어떤 특정한 형식이 아니라 '현실생활'이 되는 것이다”(151쪽)라는 설명을 가하고 있다. 《민족형식론 연구》의 설명을 딴 각도에서 풀어보면, 郭沫若는 葛一虹 등의 신문예론자와는 전혀 다른 부류라고 보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郭沫若는 사실상 그들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것은 위 인용문

32) 김희준, 《중국 항일전쟁시기 '문학의 민족형식 논쟁' 연구》, 서울 :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2.

33) 郭沫若, <「民族形式」商兌>. 《民族形式討論集》, 164쪽에서 인용.

에 곧바로 이어지는 郭沫若의 “그것은 결코 민간형식의 연장도 아니요 사대부형식의 전변도 아니며, 이 두 가지 유산으로부터 그것은 가능한 한 영향을 섭취하는 것이다.”³⁴⁾라는 부분만 보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郭沫若의 이러한 태도, 즉 본질적으로는 신문예론자에 속하면서도 민족형식 창조의 원천은 현실생활이라는 원론적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어정쩡한 태도는 곧 羅蓀의 비판을 불러 일으켰는데, 羅蓀의 다음과 같은 말은 바로 이러한 郭沫若(및 그와 유사한 견해를 가진 논자)을 겨냥한 말이다.

우리가 민족형식을 말하면서, ‘만약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잊고’, 단순히 민족생활만을 거론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를 취소하는 것이다. …… 그리고 오늘날의 과제는 ‘형식이 어떤 내용을 표현해내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내용이 어떠한 형식으로 표현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것은 ‘형식주의’가 아니라 ‘형식문제’인 것이다.³⁵⁾

羅蓀이 여기서 주장한 것은, 민족형식 문제에서 중요한 점은 민족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데 있으며, 따라서 郭沫若의 언급은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인 것이다.

그렇지만 《민족형식론 연구》는, 애초 郭沫若에 대한 선입견 탓인지 羅蓀의 이 말을 인용하면서 “羅蓀은 민족형식 창조의 중심문제는 생활내용에 있다는 向林冰의 설을 반박하면서, 문제의 중심은 단순히 민족생활을 반영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민족생활을 반영하는가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153쪽)라는 설명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羅蓀의 이 말은 대체 向林冰을 겨냥한 것인가 아니면 郭沫若을 겨냥한 것인가? 단연코 후자이다. 위 인용문의 내용도 그러하거니와, 羅蓀이

34) 郭沫若, <「民族形式」商兌>. 《民族形式討論集》, 164쪽에서 인용.

35) 羅蓀, <論爭中的民族形式「中心源泉」問題>, 《讀書月報》 2-8/9, 重慶, 1940.11.1./12.1. 蔡儀 主編, 《中國抗日戰爭時期 大後方文學書系2 理論·論爭第一集》, (重慶: 重慶出版社, 1989), 424쪽에서 인용. 이 인용문의 번역은 《민족형식론 연구》에 따른 것이다.

위 인용문에 연이어서 “만일 충실하게 생활을 묘사한 것은 모두 민족적 형식이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곧 생활실천의 문제만 남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³⁶⁾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단락이 속한 羅蓀의 글 제5절 전체가 이른바 「현실생활 중심원천론」을 비판한 것을 고려해 보면 이는 더욱 명확하다. 제5절의 첫머리는 다음과 같이 시작하는 것이다.

민간형식을 민족형식 창조의 중심원천으로 삼는 이론에 반대하는 가운데서도 몇 가지 상이한 주장을 볼 수 있다. 그중 중요한 한 가지는, 민족형식 창조의 중심문제는 생활 내용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물론 문학이란 생활 내용을 떠나서 존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목화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민족생활을 반영하는 문제가 아니라 민족생활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이다.³⁷⁾

한 가지 덧붙여서 말하자면, 《민족형식론 연구》는 150쪽에서 郭沫若의 민간문예에 관한 주장을 소개할 때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평가는 다소 과한 것이 아니었나 싶다. 필자가 보기에, 郭沫若의 주장은 의도 자체는 크게 그릇되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구체적 사실에 관련된 기술은 많은 오류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나중 向林水에 의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받았는데,³⁸⁾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한 한 郭沫若 본인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向林水의 반박을 재반박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번에는 《민족형식론 연구》가 通俗讀物編刊社의 멤버로서 구형식적 입장을 주장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胡繩과 黃繩에 대해 생각해 보자. 《민족형식론 연구》는 胡繩과 黃繩에 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36) 羅蓀, <論爭中的民族形式「中心源泉」問題>. 《中國抗日戰爭時期 大後方文學書系2 理論·論爭 第一集》, 424쪽에서 인용.

37) 羅蓀, <論爭中的民族形式「中心源泉」問題>. 《中國抗日戰爭時期 大後方文學書系2 理論·論爭 第一集》, 423쪽에서 인용.

38) 向林水, <關於民族形式問題敬賀郭沫若先生>, 《大公報·戰線》, 重慶, 1940.8.6-21을 참고하기 바람.

通俗讀物編刊社の 胡繩은 농민의 문예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 굳이 농민문예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通俗讀物編刊社の 구형식적 입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 (141쪽)
向林氷 · 胡繩 등의 구형식논자들을 [...] (144쪽)

黃繩은 向林氷과 함께 通俗讀物編刊社の 성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向林氷이 ‘내용이 형식을 결정한다’는 명제를 강조한 것과는 다른 논리를 펼치고 있었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167~168쪽)
이러한 점은 ‘舊形式의 擁護’라는 通俗讀物編刊社の 기본적 입장에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黃繩은 그러한 舊形式적 立場을 견지하면서 문예운동의 문제를 정리하고 있다. (169쪽)

《민족형식론 연구》에는 상기한 언급만 있을 뿐 그들이 通俗讀物編刊社の 구성원이었다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어떤 자료를 참고로 했는지 궁금하다. 적어도 현재까지 필자가 찾아본 바로는 胡繩과 黃繩이 通俗讀物編刊社の 구성원이었다고 한 중국 자료는 없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藤本幸三이 <「大衆化·通俗化·中國化」雜考>³⁹⁾에서 黃繩에 대하여 “宗珪, 黃繩의 의견 등은 민족주의과적인 측에서의 의견일 것이다.” “黃繩 · 向林氷은 모두 顧頡剛이 주재한 通俗讀物編刊社の 멤버였고, [...]”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의 평가는 전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며, 후자의 기술에 대해서는 藤本幸三 역시 어떤 신뢰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의 <通俗讀物編刊社とその文藝運動>⁴⁰⁾에도, 앞의 글에서 黃繩이 通俗讀物編刊社の 멤버였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기술만 있을 뿐 그 외 특별한 언급은 없다. 오히려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通俗讀物編刊社の 활동 지역은 上海를 비롯한 주로 華北 지역이었던 데 반해, 黃繩은 줄곧 廣州에서만 살다가 이 당시에는 香港으로 옮겨와 거주하고 있었다.⁴¹⁾ 또 通俗讀物編刊社の 사장이었던 顧頡剛의 《顧頡剛年譜》, 顧潮 編著, (北

39 藤本幸三, <「大衆化·通俗化·中國化」雜考>, 《人文學報》 第112號, 東京 : 東京都立大, 1976. 3, pp.1-18.

40) 藤本幸三, <通俗讀物編刊社とその文藝運動>, 《北海島大學人文科學論集》 第14號, 札幌 : 北海島大學, 1977. 3., pp.1~18.

41) 《中國文學大辭典》 第7卷, 5284쪽.

京：中國社會科學院出版社，1993.3.) 중 인명색인이나 通俗讀物編刊社와 관련한 활동을 설명한 부분에서도 黃繩의 이름은 보이질 않는다. 따라서 黃繩이 通俗讀物編刊社의 활동에 참가했을 가능성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들이 通俗讀物編刊社의 구성원이었든 아니었든 간에,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결코 구형식적 입장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먼저 胡繩부터 살펴보자. 胡繩이 농민의 문예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胡繩의 말을 참고해 보면 그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기란 어렵지 않다. 胡繩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민족혁명과 민족운동에서 농민은 필경 중요한 지위를 점하며, 이에 따라 항전 발발 이후 우리는 특히 농민의 문예에 주의하게 되었는데, 일반인이 말하는 구형식이란 실인즉 농민의 문예형식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형식으로부터 자체적으로 완전한 민족형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적 관점입니다. [...] 민족형식 창조는 오사 이후 신문에 중의 건강한 요소를 계승하여 더욱 진보적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⁴²⁾

向 선생의 오류는 현재 이미 새로운 사물과 옛 사물간의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 만일 신문에는 “소부르조아의 문예”라고 말한다면, 그러나 소부르조아 문예는 자산계급문예보다는 그래도 진보한 것입니다. [...] 만일 민족형식이 사실상 과거에 이미 있었다고 말한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민족형식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현재의 신민주주의적 현단계의 민족형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⁴³⁾

이 같은 언급을 보았을 때 胡繩은 구형식적 입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비록 약간의 정도차는 있지만 葛一虹 내지는 潘梓年の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이 점은 또 그가 당시 重慶에서 있었던 두

42) <文藝的民族形式問題座談會>, 《文學月報》 1-5 文藝的民族形式問題特輯, 重慶, 1940.5.15, 胡繩의 발언 기록. 《民族形式討論集》, 247쪽에서 인용.

43) <民族形式座談筆記>, 《新華日報》, 重慶, 1940.7.4, 胡繩의 발언 기록. 《民族形式討論集》, 257쪽에서 인용.

번의 좌담회, 특히 두 번째의 新華日報 좌담회에 참석했던 것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난다. 필자가 검토해 본 바로 『신문예 민족형식 문제 좌담회』라 이름한 이 좌담회는, 向林冰 등의 견해를 부정하여 신문예를 옹호하면서도 그간의 논쟁을 수습하고자 하는 의도하에 진행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⁴⁴⁾

다음으로는 黃繩을 살펴보자. 黃繩은 종래 向林冰과 같은 신문학 부정론자이자 구형식 주장자로 평가되어 왔지만 이는 일종의 오해라고 여겨진다. 黃繩이 이러한 오해를 받게된 가장 대표적인 언급은, 바로 다음 부분이다.

신문예 형식은 기형 발전한 도시적 산물이다. 따라서 기형 발전한 대학교수·은행경리·댄서·정객 및 기타 「쁘띠부르조아」에 대한 표현은 편협다.⁴⁵⁾

그의 이 말은, 새로운 문예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신문예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 것으로, 사실 그 표현이 다소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가 과연 신문학 부정론자였는가?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그 어휘구사가 다소 과격한 면은 있으나 그는 오로지 신문예 발전이라는 견지에서 그의 모든 주장을 펼치고 있고, 또 신문예의 적극적 성취를 긍정하면서 민족형식 창조에 있어 그러한 성취를 흡수할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의 이 말이 向林冰의 견해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더욱 그러하다.⁴⁶⁾

이들 외에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싶은 인물들이 더 있으나, 분량

44) 자세한 것은 김희준, <「민족형식 논쟁」 연구>, 163~168쪽을 참고하기 바람.

45) 黃繩, <當前文藝運動的一個考察>, <文藝陣地> 3-9, 1939.8.16.

46) 黃繩은, 向林冰의 대중화적 신내용과 통속화적 구형식의 결합이라는 기계적 논법에 대해, 이는 형식과 내용의 불가분성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상기한 언급을 하였다. 그러나 向林冰은 단장취의적으로 이 부분만 따서 구형식 옹호에 대한 자신의 논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이상 黃繩의 주장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김희준, <「민족형식 논쟁」 연구>, 118~120쪽을 참고하기 바람.

상의 한계도 있고 하니 여기서는 마지막으로 陳伯達에 대한 한 가지 사항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陳伯達는 주지하다시피 구형식의 가치를 가장 극단적으로 주장한 인물 중의 하나로, 심지어는 민족형식과 구형식을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여겨진다. 陳伯達에 대한 이 같은 평가는 필자뿐만 아니라 당시의 王實味도 그러하고 戴少瑤와 같은 오늘날의 연구자도 마찬가지인데, 陳伯達가 민족형식과 구형식을 동일시켰다는 근거로 모두 다음 구절을 예로 들고 있다.

근래 문예상의 이른바 「구형식」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정확히 말하자면 민족형식 문제이자 [...]47)

그런데 《민족형식론 연구》는 이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문제의 범주를 ‘구형식’에만 제한시키지 말고 ‘민족형식’이라는 보다 넓은 차원에서 사고하도록 하는, 시야를 확대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111쪽)라면서, 종래의 陳伯達에 대한 평가는 “王實味の 誤讀이거나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111쪽)이자 “戴少瑤 [...] 해석은 [...] 분명히 원문에 대한 왜곡”(84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陳伯達의 이러한 견해는 그의 글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표현은 다소 다르지만 그의 이러한 관점은 다음 인용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른바 민족형식의 문제는, 단순한 구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또 신형식의 창조와 발전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 신형식은 「무」로부터 탄생될 수는 없으며, 구형식의 지양으로부터 탄생되는 것이다.48)

5. 향후의 과제 및 맺음말

이상에서 필자는 민족형식 논쟁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몇 가지 문

47) 陳伯達, <關於文藝的民族形式問題雜記>. 《民族形式討論集》, 5쪽에서 인용.

48) 陳伯達, <關於文藝的民族形式問題雜記>. 《民族形式討論集》, 6쪽에서 인용.

제를 다루어 보았다. 물론 상술한 것 외에도 아직 논의의 여지가 있는 많은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모든 문제를 여기서 다 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한두 가지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면서 글을 맺기로 하겠다.

우선 민족형식 논쟁의 문예적 의의 규명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족형식론 연구》는 민족형식 논쟁의 문예적 배경으로서 「구형식이용론의 이론적 계보」라는 제목하에 좌련의 문예대중화운동, 청말 이래의 통속화운동, 30년대 중반 北京의 신계몽운동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 비록 이전에 藤本幸三이 민족형식 논쟁과 통속화운동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시도해 본 바 있고, 戴少瑤·백영길·小林弘二 등이 민족형식 논쟁과 신계몽운동과의 연관성을 거론한 바 있다고는 하지만, 좌련의 문예대중화운동 외에도 통속화운동 및 신계몽운동을 민족형식 논쟁과 연결시키면서 체계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마도 처음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이렇게 됨으로써 민족형식 논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바탕으로서의 중국 현대문학의 이른바 현대화·대중화·민족화 전통이라든가 항전이라는 새로운 현실이 가져다 준 문예상의 새로운 동력이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듯하다. 다시 말해서, 신문예의 비대중화 현상과 서구화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극복 노력을 포함한 현대화·대중화·민족화라는 신문예의 전통, 항전 발발로 인한 민족주의적 정서의 팽배, 새로운 문예 수용가로서의 농민을 위주로 하는 민중의 대두, 문예가의 현실 체험 심화 등등이 조명되지 않는다면, 문학사의 필연적인 사건으로서의 민족형식 논쟁의 성격이 명확하게 나타나기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러한 것은 혹시나 《민족형식론 연구》가 이 논쟁의 발생이 근본적으로 신문예 자체의 동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생겨나게 만든다. 이러한 의문은 延安 지역의 민족형식 논쟁이 毛澤東의 지배권 확립과 미묘한 관계에 있음을 비교적 섬세하게 분석하고 있는 반면에 문학사적으로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리 천착하지 않은 듯한 데서도 생겨난다. 다시 말해서, 이 논쟁이 문학사의 필연

적 사건이라 전제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논쟁의 성격을 정치운동 또는 그 일환으로서의 문예운동의 각도에서만 평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로서는, 만일 이 논쟁이 문학사의 필연적 사건이라는 점에 동의하는 연구자라면, 앞으로 민족형식 논쟁을 평가할 때 그 문예적 의의에 관해 진일보한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그리고 같은 차원에서 앞으로 민족형식 창조의 실천 노력을 좀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리라 생각한다. 여태껏 대부분 연구자가 이러한 이론 논쟁이 작품 창작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었다라는 원론적인 언급만 했을 뿐, 실제로 어떤 사람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지를 못했기 때문이다.

상기한 과제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예컨대 중국(毛澤東)의 「신민주주의적 내용, 민족적 형식」의 논리와 소련(스탈린)의 「사회주의적 내용, 민족적 형식」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론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양자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규명한 예는 없는 듯하다. 또 이 논쟁이 신시기 중국의 문예 민족화와 세계화 노력과 관련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점도 하나의 과제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지난 수십 년 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에 대한 비교적 만족할 만한 답을 찾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다면, 이 논쟁은 또 우리나라 문학계의 상황과는 어떻게 비교 검토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과제들에 대해 동료 연구자들이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기존의 작업을 능가해 줄 것을 충심으로 기원한다.

<참고문헌>

- 郭沫若, 〈「民族形式」商兌〉, 《大公報·星期論文》, 重慶, 1940.6.9,10.
 羅蔭, 〈論爭中的民族形式「中心源泉」問題〉, 《讀書月報》 2-8/9, 重慶, 1940.11.1./12.1.
 文學月報社, 〈文藝的民族形式問題座談會〉, 《文學月報》 1-5 文藝的民族形式問題特輯, 重慶, 1940.5.15.

- 沙汀,〈民族形式問題〉,《文藝戰線》1-5,延安,1939.11.16.
- 新華日報社,〈民族形式座談筆記〉,《新華日報》,重慶,1940.7.4
- 王一樵,〈當前的文化問題〉,《振導月刊》1-2,桂林,1942.2, pp.28~31.
- 王平陵,〈略論文學與民族性〉,《國防週報》5-3,桂林,1942.2.22. pp.10~?
- 李子青,〈文學上的所謂民族形式問題〉,《振導月刊》1-2,桂林,1942.2, pp.32~35.
- 張庚,〈話劇民族化與舊劇現代化〉,《理論與現實》1-3,重慶,1939.6.10.
- 鄭學稼,〈論「民族形式」的內容〉,《中央周刊》3-45,1941.6.20.
- 宗珏,〈文藝之民族形式問題的展開〉,《大公報·文藝》751,香港,1939.12.12,13.
- 陳伯達,〈關於文藝的民族形式問題雜記〉,《文藝戰線》1-3,延安,1939.4.16.
- 馮雪峰著,邵荃麟編,《魯迅論及其他》,(桂林:充實社,1940.10).
- 馮雪峰,〈過渡性與獨創性〉,1940.3.29.
- 馮雪峰,〈關於“藝術大衆化”〉,《抗戰文藝》3-9/10,重慶,1939.2.18.
- 馮雪峰,〈論兩個詩人及詩的精神和形式〉,《文藝陣地》4-10,香港,1940.3.16.
- 馮雪峰,〈民族性與民族形式〉,1940.1.2
- 馮雪峰,〈形式問題雜記〉,《文藝陣地》4-11,香港,1940.4.1.
- 何其芳,〈論文學上的民族形式〉,《文藝戰線》1-5,延安,1939.11.16.
- 何其芳,〈現實主義的路,還是反現實主義的路?〉,《文藝報》1953年 第3號,北京:人民文學出版社.
- 向林水,〈關於民族形式問題敬賀郭沫若先生〉,《大公報·戰線》,重慶,1940.8.6-21
- 黃繩,〈當前文藝運動的一個考察〉,《文藝陣地》3-9,香港,1939.8.16.
- 黃藥眠,〈文藝上之中國化和大衆化問題〉,《救亡日報·文化崗位》,桂林,1939.11.26 27.
- 黃藥眠,〈中國化與大衆化〉,《大公報·文藝》,香港,1939.12.10.
- 黃藥眠,〈中國化與大衆化〉,《立報·言林》,香港,1939.12.21,27.
- 胡風編輯,《民族形式討論集》,(華中圖書公司,1941.5.1)
- 李其林 選編,《文藝戰線·抗戰文學期刊選輯(二)》,(北京:書目文獻出版社)
- 蔡儀 主編,《中國抗日戰爭時期 大後方文學書系2 理論·論爭 第一集》,(重慶:重慶出版社,1989)
- 黃昌勇,〈生命的光華與暗影 -- 王實味傳〉,《新文學史料》1994年 第1期,北京:人民文學出版社,1994.2.22, pp.169~195.
- 吳福輝,《沙汀傳》,(北京:北京十月文藝,1990)
- 胡風,《胡風回憶錄》,(北京:人民文學出版社,1993.11)
- 顧潮 編著,《顧頡剛年譜》,(北京:中國社會科學院出版社,1993.3.)

馬良春 李福田 總主編, 《中國文學大辭典》 第4卷,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李盛平 主編, 《中國近現代人名大辭典》, (北京: 中國國際廣播出版社, 1989.4)

藤本幸三, 〈「大衆化 通俗化 中國化」雜考〉, 《人文學報》 第112號, 東京: 東京
都立大, 1976.03, pp.1~18.

藤本幸三, 〈通俗讀物編刊社とその文藝運動〉, 《北海島大學人文科學論集》第14
號, 札幌: 北海島大學, 1977.03, pp.1~18.

白永吉, 〈「民族形式」論爭について〉, 《文學研究科紀要 別冊 第一二集(文學 藝
術學篇)》, 東京: 早稻田大學 大學院 文學研究科, 1985, pp.107~120.

백영길, 〈민족형식 논쟁〉, 《중국항전기 리얼리즘문학논쟁 연구》, (서울: 고려
대학교출판부, 1998)

전형준, 〈민족형식논쟁에 대한 비판적 연구〉, 《중국어문학》 제9집, 경산: 영
남중국어문학회, 1985.7, pp.151~171.

김희준, 《중국 항일전쟁시기 '문학의 민족형식 논쟁'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2.

김희준, 〈香港 지역의 '문예의 민족형식 논쟁'에 대하여〉, 《중국어문논총》 제3
집, 고대중국어문연구회, 서울: 1990.12, pp.301~340.

김희준, 〈延安 지역의 '문예의 민족형식 논쟁'에 대하여〉, 《중국어문학》 제20
집, 경산: 영남중국어문학회, 1992.6, pp.209~264.

김희준, 〈胡風의 《論民族形式問題》에 관한 시론〉, 《중국어문논총》 제5집,
서울: 고대중국어문연구회, 1992.12, pp.65~93.

김희준, 〈항일전쟁시기 重慶 지역의 '민족형식 중심원천 논쟁'에 대하여〉, 《중
국어문논총》 제6집, 서울: 중국어문연구회, 1993.12, pp.101~169.

김양수, 《1940년대 중국문학 민족형식론 연구》, 서울: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1994.2.

김희준, 《중국현대문학의 「민족형식 논쟁」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1996.2.

金惠俊, 〈中國現代文學史上“民族形式論爭”研究〉,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1996年 第3期, 北京: 作家出版社, 1996.8, pp.97~118.

金會峻, 〈中國現代文學史上“民族形式論爭”有關資料目錄〉, 《新文學史料》
2000-1,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0.2.22., pp.177~201.

<제요>

「민족형식 논쟁」은, 1938년 하반기에서 1942년 상반기까지 중국 각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 논쟁에 대한 연구는 그것이가진 의의에 비추어 볼 때 아직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이 글에서는 《1940년대 중국문학 민족형식론 연구》와 《중국현대문학의 「민족형식 논쟁」 연구》 중에서, 延安 지역 논자의 견해차, 지역구분 문제, 논자의 견해와 경력, 향후의 과제 등을 중심으로, 양자의 동일한 혹은 유사한 설명 및 견해를 확인해봄과 동시에, 주로 달리 인식하고 있거나 판단하고 있는 것들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았다.